



①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국회의원들이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확보를 위한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북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연고 국회의원들이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확보를 위한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전방위 공조체제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서울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확보를 위한 전방위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오전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 정오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김 지사는 도정 주요현안과 부처별 건의사업을 공유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회단계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의 역할분담을 모색했다. 효과적 인 반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정부안 9조4,585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새만금·AI·문화·복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사업의 국회단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모두예술품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퍼지컬AI 기반 SW플

도, 전북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김관영 도지사, 도정 주요현안·부처별 건의사업 공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나 복지분야 해결책 요청

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 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 줄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 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지역구별 핵심사업이 집중 검토됐다.

전북의 미래 성장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에 함께 다뤄졌다. 여기에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제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해운항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인프라 구축부지 유치 공모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부지 선정 △자산운 용중심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등이 제시됐다. 김 지사는 협의회 이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한의임상교육센터 설립 등 국가예산 사업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시급한 복지분야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정오에 열린 전북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에서는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거론됐다. 도는 새만금·AI·농생명·문화산업 등 미래 성장축 중심으로 총 28건의 상임위별 증액 건의 사업을 제시했

다.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국회단계 반영과 주요 현안, 입법지원 등도 협의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단계별 심의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지사·부지사·실국장 역할분담체계를 중심으로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 면담 활동을 전개한다. 국회 상주반 운영과 도·시·군·정·지·관 간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 현안과 국회 단계 예산 대응이 맞물린 결정적 시기인 만큼,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의 예산이 단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환태평양 시대와 걸맞은 새만금 항만공사 설립을”

민주 이원택 의원 “경제 등 다양한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 및 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이원택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4대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 산업단지와 퍼지컬 AI 신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이 전북권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북권의 제조업과 농생명산업, 첨단소재 투자 등이 가미되면 중장기 물동량이 잠재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부두·접안·항만장비 등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산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재생과 해양관광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항만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 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CAPEX(부두 보강, 방파제, 준설, 자동화설비)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원택 의원은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운영체제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 논쟁을 끌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를 보면 군산과 새만금 권역을 통합운영하는 전북권 통합 항만공사 안으로 장점으로 규모는 경제가 가능해지며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수 있고 도시재생 및 배후부지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현행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전담조직원 분사무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점은 조직 및 재정 리스크가 낮고 배후단지 분양 및 입주 관리가 용이하고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단독으로 설립하는 안으로 장점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빠르고 곡물·냉동·신재생 기자재·자동차 RO-RO 등의 지역 특화전략에 집중이 가능하며 지역 일체감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 고용창출은 물론 배후산단에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등의 신재생 사업과 농식품 사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희성 기자

발효의 맛, 세계가 주목...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내달 3일까지

국내외 22개국 326개사 참가... 발효식품 세계 트렌드 한눈에

‘전통주특별전’ 마련... 전북 대표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개최한다.

‘발효, K-푸드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22개국, 326개 기업이 참가하여 전 세계 다양한 발효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판매장은 글로벌농생명관, 선

도상품관, 해양수산관, 상생식품관으로 구성되며, 국내기업전에서는 전통 발효식품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6차산업상품 등 지역의 특화 상품들이 전시·판매된다.

해외기업전은 호주, 스페인, 조지아 등 12개국 34개사가 참가해 각국의 발효식품과 식품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특별전시관에서는 발효식품의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식.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며 전북 식품명인대전, 향토음식홍보전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이 작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25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으로, 국민 “안식준”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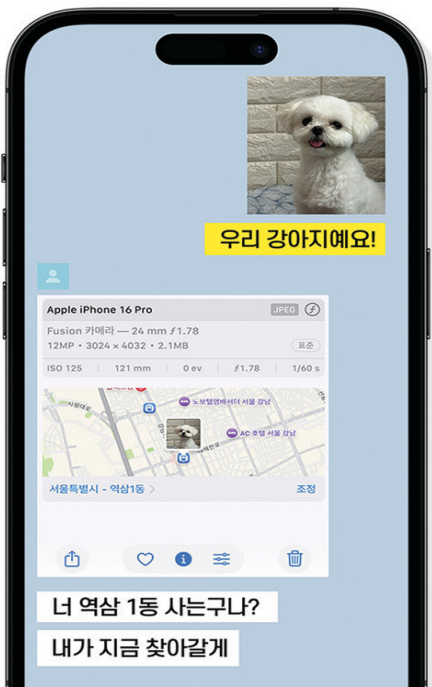


사진 하나로 당신을 찾아냅니다.

소중한 개인정보와 나를 지키기 위해,
핸드폰 사진 위치 정보 저장 기능을 끄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